
1991年度行政事務監査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公務員教育院

日時 1991年12月3日(火)

場所 文化教育委員會

(14時 15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會榮;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서울시公務員教育院에 대한 1991年度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이번 監査는 30年만에 부활된 地方議會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로써 일천만 서울市民의 대표자로서 本委員會가 執行部에 대한 立法 및 財政의 차원에서 行政이 市民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평소 議政活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활용은 물론 地域輿論 수렴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市民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심도 있는 監査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受監機關 여러분은 성실하게 양심과 法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被監査機關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宣誓方法은 教育院長 이하 서울特別市議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에 관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議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이 宣誓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 敎育院長은 發言臺에 나오셔서 宣誓文을 낭독하여 주신 뒤 宣誓書에 署名捺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職員은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敎育院長은 宣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濟亮; (宣誓)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서울시 公務員敎育院 所管業務에 대한 現況報告가 있겠습니다.

먼저 幹部紹介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濟亮; 敎育院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庶務課長 千楠洙, 敎學課長 吳錦錫, 企劃課長 蔡昇基, 銓衡室長 朴東慧)

現況說明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權會榮 文化敎育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敎育院의 業務現況을 報告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제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서 交通, 住宅, 清掃, 環境, 上下水, 低所得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民主化, 地方化, 專門化, 그리고 國際化가 요구되고 있어서 行政需要의 量的 증가는 물론 質的 高級化의 추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行政需要의 量的, 質的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市公務員들의 의식의 대전환과 고도의 專門知識涵養을 통한 자질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敎育院에서는 91年度 敎育訓練의 基本目標을 신뢰받는 公職者像 確立, 公職者의 精銳化, 國際化時代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두고 教育人員면에서 전년
도보다 약 20% 증가된 58個 課程 216回 2萬 2,100여 명을
실시할 것을 目標로 해서 11月末 현재 약 90%의 진전을 보
이고 있습니다.

主要推進事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다면 情報化社會에 대응
한 電算教育의 확대 강화, 친절·봉사자세의 確立을 위한 建
築, 綠地 등 民願分野 職員들에 대한 特別教育의 실시 그리고
국내 行政機關에서는 처음으로 秘書職全員에 대한 實務教育
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新規任用者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달리 補職 전에 公職
社會 적응과 業務遂行能力 향상을 위한 素養教育을 실시했습
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다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92年度에는 첫째, 民主化, 地方化
時代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과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民主的 公職倫理 涵養을 위한 教育
과 洞事務長 등 基幹要員 訓練課程의 신설 그리고 民願擔當
公務員의 特別教育 등 自治行政 遂行能力 향상을 위한 教育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專門化, 地方化時代에 대처하기 위해서 視聽覺教育의
확대, 新規採用者의 任用 前 教育 내실화, 電算教育의 강화,
그리고 局長, 區廳長級에 해당하는 2·3級 高位公務員들에 대
한 教育訓練課程 신설 등 行政水準 향상을 위한 教育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國際化時代에 부응하기 위해서 英語, 中國語, 日語
등 外國語教育을 강화하고 11個 자매 우호도시 教育機關과의
교류와 國際 地方自治聯盟인 IULA 등 國際機構 가입을 통해
서 教育訓練의 선진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行政需要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專任敎授 등 優秀敎授人力의 확보와 敎育施設의 확충 등 敎育여건을 改善해 나가고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市政懸案에 대해서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동시에 창의적인 業務遂行能力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監査에서 委員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是正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市 公職者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今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에 대해서 유인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公務員敎育院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敎育院 院長님으로부터 業務推進現況 報告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市政에 대한 質疑와 答辯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市民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셔서 市民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監査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順序方法을 아까와 같이 세 분 質問하시고 또 答辯을 받고 그런 方法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公務員敎育院의 敎育編成 課程을 보면 대부분 職務敎育 또는 精神敎育으로 編成되어 있는데 一線公務員의 輿論에 의하면 公務員敎育院의 敎育은 점수를 많이 따서 昇進하기 위한 방편이지 公職者의 자질향상이나 바람직한 公職者像을 正립시켜주는 課程이 아니라고 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週 내지 3週 동안 敎育을 履修한 후 머리에 남는 것은 점수 계산뿐이지 職務에 接목해서 活用하겠다는 생각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院長님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 분석해 보셨는지 또 敎育에 투자된 비용에 관하여 敎育履修生의 業務活用度 및 기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貞順 委員; 趙貞順 委員입니다. 院長님 상세하게 報告를 잘 해 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公務員도 날로 職務公務員으로서 專門化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敎育 또한 專門化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발하고 있으며 차후 세대를 대비 院長의 견해와 敎育 中長期計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市公務員 職務敎育이 履修過程別로 시험출제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昇進 및 人事考課에 불이익을 끼친 사례가 있다는데 향후 그에 따른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91年度 期別 職務敎育 平均 試驗成績 現況을 說明해 주시기 바라며 그 근거자료는 書面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事務官昇進 公務員들이 종전에는 市公務員敎育院에

서 敎育을 실시하였는데 좋은 시설을 갖춘 市敎育院을 두고 議會가 구성된 후 內務部의 통제관계로 水原에 있는 地方行政研修院에서 서울시가 아닌 內務部 所屬部署의 公務員도 함께 敎育을 받음으로써 都市行政 즉 서울시 行政에 맞는 敎育이 결여될 뿐 아니라 또한 敎育問題 등을 감안하여 內務部가 협의 등을 전제로 次期부터는 이 敎育을 市敎育院에서 받도록 하는 院長의 구상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喆鎬 委員; 李喆鎬 委員입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行政與件의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각종 첨단장비의 이용기능을 습득하여야만 情報社會에 적응하고 보다 市民들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公務員敎育院의 각 電算敎育課程이 여기 보면 5일 정도씩 되어 있는데요, 이렇다면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敎育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新規採用公務員 敎育時 電算敎育이 함께 실시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電算敎育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新規採用者 敎育時에 電算敎育을 병합 실시할 용의와 계획을 자세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質問드리겠습니다. 서울시 公務員으로서 敎官要員으로 選定된 기준 및 근거와 현재 擔當科目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行政의 신뢰성 제고야말로 대민 봉사창구에서 직접 市民들과 접촉하는 民願擔當 公務員들의 근무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 市民들이 느끼는 公務員들의 불친절 및 위압적인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敎育方案은 무엇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두에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地方化 時代에 부응해서 대도시문제 해결능력의 배양,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地方化時代에 부응해서 公務員教育에 서울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서울시 公務員만이 고유하게 간직할 수 있는 特別教育課程의 신설 용의는 없는지 이 점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教育院長님께서 세 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시간을 허용을 해 주셨으면 보다 정확한 答辯을 드릴 텐데 바로 答辯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선 제머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범위내에서 아는 대로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書面으로 答辯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善童 委員님께서 教育內容의 職務教育 등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公職者像 確立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教育投資費用에 비해서 教育活用도가 낮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하는 취지의 質疑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教育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教育院長이 실용적이고 專門的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業務에 막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教育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教育課程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職務教育課程, 두번째는 專門課程 그리고 끝으로 特殊課程이라고 해서 特殊한 教育對象을 상대로 해서 教育을 하는 이러한 세 가지

敎育課程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職務敎育課程은 敎育訓練法上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週期로 敎育을 시킬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敎育을 마쳐야만 加點이 됩니다. 15점 범위내에서 백분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加點이 되는데 사실 敎育者 本人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加點이 되는 이 敎育에는 들어오려고 열심이지요.

그러나 또 자기가 맡은 業務가 바쁘다 보면 機關長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敎育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敎育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되겠다해서 敎育期間을 단축시켜서라도 우선 人事考課에 관련되는 職務敎育, 바꾸어 말씀드리어서 基本敎育에 대해서는 敎育을 시키자라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敎育課程이 이제 길게는 4週정도 하는 것도 있고 짧게는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秘書를 위한 敎育 이것은 市長님도 강조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秘書라는 職策이 저희들은 秘書라고 안하고 附屬室職員이라고 합니다만 거의 機關長이면 機關長 業務의 반을 이 附屬室職員들이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한 응대라든지 혹은 또 來訪하는 손님에 대한 民願이나 그밖에 業務의 처리숙련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또 능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機關長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三星에서도 처음 시행하고 있는 秘書敎育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勞動部에서 내년초에는 秘書職을 專門

化해 가지고 秘書資格試驗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일주일동안 敎育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本人들도 敎育을 받은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보면 한 일주일은 敎育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開陳하는 사람들이 많습시다하는 附屬室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나절 敎育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소위 人事考課에 반영되는 敎育課程에 대해서는 公務員 특히 선발된 敎育生들의 경우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 주어라 그렇게 저희들이 敎官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이외의 課程 이르면 이제 人事考課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는 課程에 대해서는 敎育받아서 무엇 하느냐, 人事考課에도 반영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그것 괜히 敎育에 差出이나 되어 가지고 자기 業務는 業務대로 밀리고 하니 敎育이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敎育이나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敎育이라고 하는 것은 平生敎育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자기자신의 啓發과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될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市長님께서도 부임하시자마자 자기 所管分野에 대한 책 중에서 20권은 책을 각자가 사서 읽어야 된다 그러셨다가 20권은 너무 過했는지 최소한도 5권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設問調査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권도 읽지 않은 公職者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局長들 보고 당신이

볼 때에 당신분야에서 이 정도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을 5권씩 選定을 해 가지고 職員들에게 구독하도록 권장을 하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100%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教育上의 教育訓練技法의 문제도 물론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公職者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구조의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教育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는 어떠냐, 이것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일단 教育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분명하게 낫다 하는 것을 委員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行政電算網 管理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住民謄錄만 行政電算網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가 보면 현재 事務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事務室에 재털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事務用 비품 중에서 거의 볼펜이니 종이니 기안서류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行政의 과학화를 통해서 컴퓨터化, 또는 OA化, 事務自動化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電算教育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市長님은 저희들이 중요한 懸案施策에 대해서는 政策會議를 일 주일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政策會議를 열 때에는 왜 政策會議를 여느냐 그리고 중간에 發言한 사람들의 發言要旨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컴퓨터 단추만 눌러보면 政策이 왜 이

렇게 되어서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입력을 빨리 시켜라 여러 차례 강조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수로 우선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한번 표본조사를 통해서라도 計數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만 教育을 받은 것이 本入들이야 그것을 좋아하건 싫어하건간에 하여튼 안 받은 사람보다는 확실히 대민봉사나 자기 業務遂行하는 데 있어서 기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趙貞順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教育의 專門化計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進行을 하고 있느냐 또 이에 대한 中長期計劃이 있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分野別 專門化計劃을 우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年初가 되면 教育에 관심이 있는 局長들은 와서 2·3日課程 혹은 하다 못해 바쁘면 하루課程이라도 教育을 시키는 局長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專門分野別로 專門知識 혹은 요령 이런 것들을 教育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 基本的인 教科目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옛날理論, 옛날技法 가지고 그대로 前例踏襲的으로 教育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자성과 함께 최신의 理論, 최신의 자세 이런 것들을 教育시키기 위한 專門化計劃을 推進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中長期計劃과 함께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書面으로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中長期計劃은 현재 初案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中長期計劃은 우선 初案이라도 필요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履修課程別 성적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91年度の 平均成績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거리의 하나였습니다. 저의 집으로까지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래교수의 경우의 例인데 試驗 전 날 이러이러한 것은 알아두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한 教育生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인 것이지요. 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력으로 우수한 成績을 얻을 자신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힌트를 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 講師室에 가보면 주의를 하도록 안내문을 써붙여 놓았습시다마는 평소에 教育할 때에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公職者면 알아두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강조해 두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試驗 전 날 이런 것은 중요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示唆를 해 주는 것은 成績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 履修한 사람들은 成績을 예를 들면 平均 成績을 90점 이상을 다 받았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今年度에 들어와서는 90점 이하더라 이런 職務教育이면 職務教育課程에 있어서의 과거와의 형평문제 이것도 人事考課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今年度の 教育成績資料를 여기 갖다 주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書面으로 해서 다시 자세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90年度에 90점이상 받은 사람이 職務教育課程의 경우입니다. 人事考課에 반영되는 90점이상 받은 사람이 90

年度에 47.8%였습니다. 89年度에 45.8% 그리고 90年度에 들어와서.....

○趙貞順 委員;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표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표의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曹相彩 委員;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활용하고 정확한 答辯을 듣기 위해서는 즉석에서 質疑하고 答辯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質疑를 우리가 쪽하고 일단 停會를 했다가 다시 答辯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즉석에서 質疑 答辯을 하게 되니까 우리 院長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答辯을 하시고 해서 일단 停會를 하겠습니다. 院長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李汪烈 委員; 議事進行發言中에 보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質問을 우선 많이 받고 거기에서 質問이 없을 경우에 停會를 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적당한 시간에 다시 質疑를 하고.....

○曹相彩 委員; 계속해서 質疑를 하고 세 분 내지 다섯 분 質疑를 한 다음에 停會를 하고.....

(「전체 다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를 전부 하고..... 委員長님 이렇게 건의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한 분이 남아계신데, 質疑한 중에서 더 종합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質疑를 하고 우리가 종합해서 停會를 일단 했다가 答辯을 받도록 하는 이런 順序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우선 수고가 많습니다. 質問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58個 課程이 本 研修院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8個 課程의 교재명과 저자, 교재마다 과정마다 기간, 직무, 전문, 특수 해서 거기에 목록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관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敎官敎育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발간교재가 225개나 됩니다. 그래서 225個의 목록표가 과연 교재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연도별로 오래된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 가지 볼 수 있기 때문에 資料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外國人의 本 敎育院 敎育현황이 海外研修交流 現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現況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다른 나라의 소위 研修院의 교재, 교과목 커리큘럼의 現況을 갖고 있는지, 비교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오늘날은 情報를 서로 나누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해서는 안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참고로 하버드대학교의 行政大學院에는 거기에 政府職員 내지 市議員들에 대한 바로 로칼가브먼트(local government), 센추럴 가브먼트(central government)의 커리큘럼이 별도로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한 학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敎育計劃審議委員會가 16名인데 市議員도 참여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 했는데 아무튼 位相이 어떻게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여기 文化敎育分科委員會 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서 아마 여

기에 참고가 되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어떤 방법이든지 형태든 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地方議會 運營課程 1회를 했고 4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다섯 번째 또 外國語教育에 英語, 日語를 이제 中國語까지 해서 6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蘇聯의 러시아어 3億의 인구가 사용하고 대단한 파워를 가진 나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어 海外研修, 言語를 한 종목을, 어차피 中國語까지 했다면 추가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1명의 교육받은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IULA, 國際地方自治聯盟에 釜山은 定會員으로 加入이 되어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로 加入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準會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加入이 될 것이고 加入이 되면서 어떠한 惠澤과 어떠한 特徵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전부 70個國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資料에 보면 打字教育으로 해 갖고 102대의 打字機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打字機를 없애고 컴퓨터로 하는 그런 時代로 바꾸겠다고 아까 중복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打字教育을 할 것인지, 이것은 可及的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컴퓨터化 해 가지고 職員도 어느 정도 高級幹部 以外에는 전부 電算化해 갖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教育이 徹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講師料 基準과 그 內容 資料를 參考로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劉起鍾 委員; 劉起鍾 委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國際化, 情報化時代에 부응해서 公務員의 精銳化가 要請되는바, 公務員訓練法 第10條에 의하면 公務員들은 每5年 週期로 해 가지고 教育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教育院施設로 그 教育對象者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체증이 되면 얼마나 체증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院長님의 앞으로 教育院運營 改善方案을 볼 것 같으면 3年週期로 해 가지고 公務員들의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適期에 提供해 주기 위해서 3年週期로 教育을 實施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現在의 施設도 本委員이 알기로는 不足하고 講師陣도 不足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年週期로 實施했을 때 지금 施設과 講師陣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公務員들이 公務員教育院에서 教育을 받음으로 인해서 利得이 되는 것과 利得이 안 되는 것, 履修하는 사람의 身分上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저희가 公務員教育院을 訪問했을 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特殊地域에 勤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昇進하기 위해서는 洞事務所에 가서 勤務를 한다든가 區廳의 民願室에서 勤務를 한다든가 아니면 公務員教育院에서 勤務를 한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알

기로는 公務員敎育院에서 8年, 10年씩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昇進을 제대로 못해서 勤務의 士氣가 떨어지고 또한 不滿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에 長期 勤務하신 분들의 昇進狀況을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仁雨 委員; 金仁雨 委員입니다. 現在 서울市職員中에는 약 20% 정도가 女職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女性의 社會進出이 擴大되면서 公務員으로 就業하는 女性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女性들이 禮節과 美風良俗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배울 것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女子公務員中에서 未婚女性도 많고 또한 既婚女性도 많은데 과연 이 분들이 한 家庭의 主婦로서 또 웃어른을 모시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女子로서 禮義凡節, 美風良俗을 갖추고 있는지 疑問이 납니다. 公務員하면 아직까지 우리 社會에서 그래도 模範的인 國民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女性公務員에 대하여 제가 직접 말씀드린 禮節이나 美風良俗에 대한 敎育을 實施함으로써 女性社會團體의 擴散, 普及의 必要性이 있기 때문에 院長께서는 그동안 서울市 公務員敎育院에서 이러한 事例의 敎育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이러한 敎育課程을 敎科敎育에 넣어서 시도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서울市公務員은 昇進도 늦고 昇進하려면 試驗 등의 節次가 있어서 6級, 다시 얘기해서 主事級以下로 停年을 맞는 경우가 약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6級 즉, 區廳에서 係長級の 경우 50세 前後

가 상당히 많고 事務官以上일 경우에는 더욱 年齡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高齡者들을 모아놓고 試驗을 봐서 能力評價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運動不足, 公害속에서 激務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서 좀더 인간답고 未來指向的인 教育方法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나안農軍學校처럼 술·담배를 끊고 身體健康을 圖謀할 수 있는 克己訓練을 한다든지 아니면 著名한 講師를 招聘해서 삶의 여정을 새길 수 있는 人間講座를 투철한 國家觀과 公職자로서 使命感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精神教育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 이것은 개인의 人格陶冶가 되고 이는 곧 전체 公務員社會가 健康해지고 결국은 國民 리더集團으로서 國家 전체가 바르고 健康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院長의 所信과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91年度 業務 推進 現況報告 19페이지에 나와있는 主要推進 實績을 보면 低所得子女 打字教育에 대한 當初計劃이 연내에 80名을 또한 2回 教育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11月 26日 現在 1回 教育에 10名만이 打字教育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計劃과는 달리 實績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政府에서도 打字手 增員을 동결시키고 컴퓨터活用을 積極 推進하고 있는바, 低所得子女에 대해서도 打字教育보다는 컴퓨터教育을 무료로 시키는 教育訓練課程을 導入할 計劃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月 26日 現在 民願擔當職員 2,040名이 7회에 걸쳐 特別教育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市가 지난

달 區廳 및 洞事務所의 民願擔當公務員 1,100名 對象으로 벌인 公職觀 및 民願人에 대한 意見調査 結果 낮은 給與와 昇進機會 不足 등으로 民願公務員의 만족도가 3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環境속에서는 民願公務員들에게 親切과 奉仕만을 強調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敎育院에서는 民願擔當 職員들에 대한 特別敎育을 어떤 內容으로 實施하고 있으며 敎育의 成果에 대한 自體平價 結果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들어 法 秩序紀綱 確立에 대한 敎育에 8회에 걸쳐 1,001名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록 敎育對象자들이 綠地, 土地, 地籍, 建築關聯 公務員들로서 흔히 新聞紙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非理, 不正의 誘惑이 많은 部署라고 생각이 됩니다. 88年以後 敎育院에서 法 秩序紀綱確立에 대한 敎育을 받은 公務員中 非理와 不正에 대해 關聯되어 懲戒, 罷免, 解任된 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敎育履修後非理關聯에 대해 持續적으로 파악해서 敎育에 反映할 수 있는 對策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昨年 4月 13日 開催된 敎育計劃審議委員會에서 公務員像 再定立을 위해서 스마일賞을 制定하여 인사에 反映시키고 서울시가 바라는 公務員像을 制度化하여서 해당 실제 인물을 選定케 하자는 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現在 市政에 反映되고 있는지 또한 反映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建議하여 制度化할 意思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學 委員; 李鍾學 委員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海外研修後에 結果報告書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제출한 內容을 보면 本委員도 共感이 가는 內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報告書에서 市政에 기여한 結果나 效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1年度 時間講師를 살펴보면 市立大學 教授님들이 유독 많습니다. 特別한 事由가 있는가, 같은 서울시의 傘下大學이기 때문에 연관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유능한 講師陣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講師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지 정확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教育計劃審議委員會를 보면 4月13日 開催된 內容에 있어서 27名의 教育計劃審議委員中 9名만 參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過半數인 14名만 參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教育計劃審議委員會의 委囑에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形式的으로 委囑만 해 놓고 우리 서울시 公務員들 사이에 서만 모든 行政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 4月13日을 보면 27名中에 3名만 參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으로 오늘 프린트의 상태를 보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제가 눈이 1.2, 1.5입니다. 內容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資料提出시에 印刷狀態를 點檢을 잘 해가지고 監査에 임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質疑드렸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상당수의 委員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答辯할 수 있는 時間餘裕를 드리기 위해서 약 20分 정도를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39分 監査中止)

(16時 21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會榮;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關係官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요약해서 答辯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貞順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 못한 것이 事務官 昇進試驗을 치루고 나서 內務部에서 教育訓練을 시키게 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市의 教育訓練計劃이 이미 짝차있었고 또 內務部에서 全國적으로 그것을 一元化해서 施行할 計劃下에서 意見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런 實情을 얘기했더니 今年度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來年度부터는 서울市 事務官 要員에 대해서는 우리 自體內에서 教育訓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喆鎬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電算教育課程은 너무 짧지 않느냐 新規採用 公務員의 경우에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原則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워드프로세스 集計表, 그리고 데이터베이스活用 이 정도의 충분한 教育을 하려면 20일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일선의 職員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集中教育을 시키고 있는 狀況인데 다만 5日동안의 行政電算網 運營, 事務自動化 특히 워드프로세스 作動,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런대로 行政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新規採用 公務員課程에는 現在 4時間이 割愛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割愛를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敎官要員의 選定基準이 무엇이나, 擔當科目은 무엇이나, 選定基準은 敎育訓練法施行令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7級이상의 公務員으로서 關聯實務에 3年이상 勤務한 經歷을 가지고 있고 專門大學 이상은 졸업한 사람 中에서 敎官要員을 選定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優秀한 敎官要員 確保가 되도록 內務局과 協調를 해 나가겠고 擔當科目에 대해서는 별도로 資料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民願擔當 公務員의 親切·奉仕 敎育에 대해서 敎育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計劃이나 모든 課程에 親切·奉仕 敎料目を 設置를 하고 強調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來年度에는 今年度에 市民奉仕室 要員들이 銀行에 가서 銀行員들이 對民 對顧客 親切·奉仕姿勢 혹은 敎育받은 內容들을 배워온 것이 상당히 效果가 있는 것으로 判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프로그램을 저희 敎育院에서도 導入을 하려고 지금 推進中에 있습니다.

地方化時代에 대비해서 地域特性에 맞는 敎育課程을 新設할 用意는 없으나, 물론 地方化 자체가 地域實情에 맞는 行政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地方化 내지는 地域實情에 맞는 그러한 敎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우선 서울市의 경우에는 市政懸案 問題中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方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問題를 놓고 22個 區의 專門家가 나와서, 研究한 사람들이 나와서 經연을 벌이도록 해 가지고 그 中에서 創意性이 있고 採擇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것을 擴大普及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할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區單位로 또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동네가 특별히 많은 동네라든지 혹은 쓰레기가

많은 동네라든지 혹은 또 都心部に 있어서 都心の 어떤 特殊한 問題를 가지고 있는 등의 그런 特性을 가지고 있는 區單位가 있기 때문에 區單位 特性에 맞는 教育은 職場教育을 強化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李汪烈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8個 課程이 있는데 225科目的 教材를 發行하고 있는데 저자는 누구이고 目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委員님들 要求하신 資料 32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 사이에 전부 目錄이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官課程 設置用意는 없느냐 저희 自體教官에 대한 訓練課程은 저희 나름대로 開發을 하고 訓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課程 設置問題는 教育訓練法施行令에 中央公務員教育院과 內務部, 地方行政研修院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法令을 고쳐서 저희 자체에서도 教官要員을 訓練시킬 수 있는 課程을 設置하도록 그렇게 推進해 보겠습니다.

外國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것을 導入할 準備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外國 研修院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姉妹都市에다가 전부 팩스나 郵便을 통해서 協助要請을 했는데 郵便가지고는 역시 協助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海外視察을 內務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海外視察을 나갈 때에 視察地의 教育훈련기관도 방문을 해서 教育커리큘럼에 대한 資料를 입수해 오도록 이렇게 當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現在 입수하고 있는 資料는 日本동경도와 오사카부의 커리큘럼, 그리고 美國의 聯邦人事管理處라고 OP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상세한 內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커리큘럼에 參考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地方議會課程은 對象을 주로 地方自治關聯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職員들을 對象으로 해서 그 동안 施行을 했습니다만 점차 이것을 擴大를 해 나가겠다고 지난 번 教育計劃審議委員會 때는 參考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市議員님들하고 主要市政懸案 業務를 다루고 있는 部署의 幹部들하고 이렇게 合同으로 해서 그것을 共同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세미나형식으로 한번 開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市議會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意見을 여쭙어 보려고 準備中에 있음을 報告를 드립니다.

外國語課程에 있어서 中國語課程 외에 蘇聯語課程을 設置할 用意는 없느냐 물론 앞으로 設置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必要性을 느낍니다만 蘇聯語에 대해서 基礎的인 素養들이 없고 또 教授確報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研究를 해 본 다음에 報告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ULA에 加入을 할 때에 得失이 어떠냐 IULA本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자카르타에 支部가 設置되어 있는데 저희 市는 여러 해 전에 여기에 定會員으로 加入을 했다가 몇 년동안 會費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會費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確認된 바는 아닌데 그래서 몇 千萬원의 會費가 滯納이 되다 보니까 그냥 準會員으로 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教育訓練期間만 들어갈 때는 準會員으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亞太地域 支部인 자카르타에 팩스로 加入意思를 표시를 하고 回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打字教育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化 教育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來年度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打字教育에 대신하는 컴퓨터教育이라고 하면 워드프로세서教育이 되겠습니다.

講師料 基準과 內譯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等級을 나누어서 5萬원, 3萬 5,000원, 3萬원, 2萬 5,000원 4個等級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內容은 표로 나중에 提出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劉起鍾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精銳化가 필요한데 5年 週期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체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教育受容 施設能力이 어떠하나 教育積滯가 每年 한 6,000名 內外씩 이렇게 移越이 되어 나가는 狀況입니다. 그래서 講義室을 우선 6個程度는 지어야 이것을 3·4個년차에 걸쳐서 解消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먼저 報告드렸던 內容에 의하면 우선 市政綜合資料室棟을 완전히 引受해서 그것을 講義室로 쓰는 方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引受해서 쓰려면 거기에 圖書을 옮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美文化院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한 층만 아마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市議會의 專門委員님들을 비롯해서 여기도 事務室 空間이 비좁기 때문에 그 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市長님이 아직 이 問題를 決心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判斷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教育院에서 쓸 수가 없는 경우에 電子計算所를 거기다가 92年, 93年 그리고 今年度に 設計를 해서 3年次計劃으로 地下 1층 地上 4層으로 推進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個層을 더 지어서 한 500坪 나옵니

다만 그것을 講義室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市長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企劃管理室長하고 협의를 해 보아라 그러시던대 약 8億 程度가 우선 來年度에 그렇게 되면 必要할 것으로 判斷이 되고 3年次計劃으로 짓는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우선 必要한 것이 設計費用 같은 것이 確保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根本對策은 講義室棟을 別棟으로 增築을 하는 것인데 약 1,300坪을 지어가지고 講義室 專用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약 20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이것을 이제 결심을 못했습니다만 院長의 욕심으로는 이것을 한 3個年計劃으로 해 가지고 來年度에 設計費로 해서 한 2億 그리고 3年次計劃으로 해서 1次年度의 것으로 해서 6億해서 한 8億 程度가 計上이 되면 教育棟이 確保가 追加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 教育을 받음으로써의 得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現在 加點制度는 그동안 物議가 많이 있어서 市에서 改善할 수 있는 것은 改善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上位法令에서 規定을 하고 있기 때문에 總務處에도 問題提起를 해 가지고 總務處에서 얼마전에 加點制度를 改善을 했습니다. 우선 教育院과 關聯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2.5까지 許容이 되었었습니다. 2年半만 있으면 2.5程度의 加點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月 0.05로 半減이 되었습니다. 半減이 되어 가지고 22年남짓 勤務를 해도 1.25만 加算이 되고 그 이상은 加算이 안됩니다. 洞事務所는 아마 이것보다도 조금 낮아 가지고 0.035씩 한 달에 加點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長期勤務者의 昇進狀況에 대해서는 저희 教育院의 경우만

말씀드리다면 技能職公務員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號奉만 올라가지 9級에서 8級으로 승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昇進을 위한 制度는 金仁雨 委員께서도 質疑의 말씀이 있었습시다마는 그래서 高齡者나 經驗者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50%는 審査昇進을 시키고 50%는 試驗昇進을 序列 3倍數 범위안에서 경쟁을 시켜서 昇進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仁雨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女職員을 위한 教育을 앞으로 擴大할 用意가 없느냐 今年 5月달에 家庭福祉局에서 主管이 되어서 1日教育으로 實施를 했었습니다.

이 問題는 家庭福祉局과 協議를 해서 앞으로 하나의 專門課程으로 해서 設置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市職員의 昇進이 늦는데 高齡者의 能力評價를 하는 것은 무리하고 人格教育같은 것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昇進 制度는 半半씩 審査試驗으로 나누어져서 施行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報告드립니다.

다음에 李載震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低所得層 子女 打字教育의 計劃 實績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나, 컴퓨터教育을 擴大할 用意는 없느냐 저희들이 低所得層 子女에 대한 打字教育을 無料로 그것도 一般學院에서 하고 있는 期間의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學院에서는 하루에 두세 시간 教育시키고 맙니다만 저희는 집약해 가지고 集中的으로 하니까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各區廳會議에서 두 차례나 얘기를 해 가지고 教育對象者를 差出을 요청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컴퓨터같은 것이나 하지 단순한 打字같은 것은 배워도 實益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來年度부터는 워드프로세서 資格試驗도 치른다고 하니까 워드프로세서 敎育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政策을 發展시켜 나가겠습니다.

民願擔當職員의 만족도가 낮는데 親切·奉仕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물론 末端公務員들이 고생하는 것 委員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걱정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公職者는 역시 市民의 受任을 받아가지고 市民을 위해서 奉仕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名譽를 위해서 이 職을 選擇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報酬나 收入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公職者가 있다면 方向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法秩序 紀綱確立 敎育에 있어서 履修者中 非理에 관련된 者가 얼마나 되느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全數調査는 못 했습니다마는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監查官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全數調査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일賞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敎育計劃審議會 때 얘기가 나와서 內務局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人事課와 行政課에서 施策化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李鍾學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海外視察 결과 중에서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데 市政에 반영된 사례가 있느냐, 최근에 저희들이 海外視察을 나갈 때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市의 敎育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

역시 市政懸案中에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주어서 視察을 시키니까 사실 고달픈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최근에 市長님 관심가지고 계시는 地下高速道路의 外國의 推進實態는 어떠냐 이런 점을 資料라도 전부 入手해 가지고 상당히 活用이 되고 있습니다.

地下高速道路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얻어 온 資料를 가지고 道路局, 都市計劃局에서 지금 活用을 하고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講師中에 市立大 教授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나, 물론 市 傘下機關으로써 研究機關이 市政研究官室 또 저희 公務員教育院, 市立大學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有機的으로 活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意見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市立大 教授가 많아진 것은 아니구요, 市立大 教授가 역시 都市問題와 혹은 市政懸案에 대해서 아는 教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教育計劃審議會의 참석률이 왜 저조하냐, 資料를 다시 보았더니 4月 13日에 開催된 審議會中에서 定員이 16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무원 2名이 끼여 있어서 外來人事는 14名인데 14명중에서 그때 어떻게 바쁘셔가지고 9名이 참석을 하시고 5名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委員長님께서 허용이 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委員님들도 여기에 한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유인들의 불량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최근에 用紙節約 차원에서 양면으

로 쓰자, 혹은 質이 좀 낮은 것으로 쓰자, 거기다 곁들여가지고 發刊室에서 전부 議會의 監査用資料들을 의뢰하다 보니까 業務가 너무 집중이 되어 가지고 不實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報告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마지막으로 質疑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입니다. 監査資料 요청에 있어서 敎育院에서 성의껏 資料를 제출해 주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質疑하고자 하는 것은 敎育院長에게 質疑를 한 가지 하고 또 敎育院에서 제출한 資料가운데에서 質疑를 한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敎育院은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部署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실력을 연마하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院長을 비롯해서 任職員, 敎授들이 敎育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은데 上級機關에서 뒷받침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든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實務者한테 質疑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資料提出한 가운데 읍셋인쇄기구매난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원가계산 해 가지고 읍셋 이것을 1,210萬 원에 敎育院에서 購買를 했습니다. 그런데 輸入物品原價計算書에 보면 輸入物品의 外貨標示原價 970, 關稅, 通關稅, 保稅倉庫料, 荷役料, 國內運搬費, 信用狀開設 手數料, 其他 小計해서 1,229萬 58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一般管理費 8%, 利潤 10%, 附加價值稅 10% 小計해서 토탈 總計가 1,481萬 6,3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敎育院에서 옵세트 購入은 얼마나 했느냐 하면 1,210萬원에 購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輸入物品原價에 미치지 못한 1,210萬원에 購入을 했는데 이 業者는 利潤도 없고 附加價値稅도 없이 오히려 輸入한 價格에서 마이너스로 敎育院에다가 納品을 하게 된 근거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굳이 이런 것을 監査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敎育院에서 主任務가 公務員들 敎育향상을 위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敎育院長한테까지 올라간 決裁事項이 아닙니다. 實務者 購買官으로서 專決事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院長께서는 이런 것을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명색이 그래도 서울市 議會에 제출한 資料의 내용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資料를 제출했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答辯을 안해도 좋으니까 敎育院長께서는 이런 것을 항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에 얘기한 소신껏 敎育院을 運營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잘하고 있다, 어디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서울市 敎育院은 열심히 任職員과 敎授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答辯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뒷바라지를 안 해 주어서 못하고 있다든가 이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濟亮; 曹相彩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敎育院의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市長님께서 敎育訓練에 대해서 학자출신이신지 敎育刷新計劃을 수립을 하라 혹은 어떠한 어떠한 사람들을 敎育을 시켜라 하는 식

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표명을 해 주신 점을 먼저 報告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단순한 敎育訓練만이 아니라 연구발전 業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면 무슨 地方財政확충을 위한 세미나 같은 것을 內務部 地方行政研修院에서도 했고 大邱直轄市에서도 했는데, 그 때 나온 얘기 중에서 서울시는 부자니까 서울시에서 돈 좀 갖다가 우리같이 없는, 財政自立도가 낮은 自治團體에다가 內務部가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개를 해서 우리도 좀 市議員님들 모시고 이러한 세미나라도 해서 서울시의 財政狀態가 과연 自立도가 100%냐 지금 負債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5%에서 80%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外部機關에 알릴 겸 또 학자들의 財政確充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 專門家들의 의견 이런 것도 좀 모아서 關係部署에서도 참여한 가운데 이런 것을 발전을 시키면 어떻겠냐 해서 推進을 했는데, 關係部署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敎育院에서 그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財務局이 있고 企劃管理室이 있고 그런데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해서 중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님의 격려에 저희들도 분발을 해서 누가 뭐라든지 敎育訓練도 열심히 하고 研究發展業務도 게을리하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읍셋인쇄기 購入은 部長專決로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購買入札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는 중요한 事項에 대해서는 우선 公開入札原則을 지켜라, 그리고 價

格도 物價調査月報같은 것을 보든지 해서 좀 싼 값으로 購入을 하도록 해라, 그런 것들을 책임성있게 해 달라 하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表를 보니까 좀 저도 이상한 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實務課長으로부터 간단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庶務課長 千楠洙; 庶務課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읍셋인쇄기는 저희들이 公務員教育訓練과 다른 部署에서 施行하지 않는 試驗問題를 管理하는 部署中에 試驗問題를 管理하는 部署에서 院長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試驗問題 유출이라든지 또 어떤 인쇄과정에서 그러한 흔히 紙上으로 報道가 되고 있는, 쓰레기통에서, 어떤 식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러한 廢紙가 나오는데 쌓여서 나가는 것을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전 부 問題 하나하나에 번호가 매겨져서 새로운 읍셋인쇄기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院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읍셋인쇄기를 사도록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서울特別市財務會計規則에 의해 가지고 課長이 工事나 物品을 살때 그 범위를 專決規程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그 범위를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課長이 專決하는 事項은 物品을 사고자 할 때 2,000萬원입니다. 그리고 院長이 하는 것은 2,000萬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庶務課長위에 教授部長이라는 職責이 하나 있습니다. 教授部長이라는 것은 地方副理事官을 補하고 企劃課長과 教學課長을 밑에 두고 있는데 教學課長, 企劃課長은 書記官으로서 教授業務를 관장하면서 銓衡業務도 施行 管理하는 事務官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會計書類는 차질없이 12日에 附議해 가

지고 公開競争하다가, 附議해 가지고, 豫算會計法の 法規에 따라서 購買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報告가 못 되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曹相彩 委員; 제가 質問해도 答辯하겠습니까? 이것으로 그칠까요? 質問해도 되겠습니까?

○庶務課長 千楠洙; 네.

○曹相彩 委員; 지금 資料에 의할 것 같으면 競争入札입니다. 그렇지요?

○庶務課長 千楠洙; 네.

○曹相彩 委員; 競争入札인데 原價보다도 더 미만으로 入札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庶務課長 千楠洙; 이것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사전에 報告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中央政府에서 運營하는 豫算會計法하고 우리 서울特別市에서 運營하는 地方財政法하고 두 가지 法規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會計書類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官職을 지정해 가지고 院長님 같으면 院長에 대해서 經理官을 하고 그것을 他 部署에서는 分任經理官을 지정해 가지고 運營합니다만 이書類를 일단 本廳 監査室, 監査院에 그 寫本을 전부 보내고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執行機關에 와가지고 그것을 監査를 하고 調査를 합니다.

○曹相彩 委員; 여기서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갖고 싶지 않고요. 庶務課長께서 이 부분이 어디서 잘못 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書面上으로 瑕疵가 있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調査書가 잘못되었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규명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이것 때문에 너무 낭비하지 맙시다.

○庶務課長 千楠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補充質疑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補充質疑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장시간 1991年度 서울特別市議會의 行政事務監査를 성실하게 受監한 敎育院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監査에서 지적된 事項에 대해서는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是正措置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市民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散會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05分 監査終了)

(參照)

[書面答辯書]

(뒤에 실음)

○出席監査委員

權會榮 金相復 曹相彩 劉起鍾

孫允準 金熙健 李鍾學 孫馥

李汪烈 張精一 金仁雨 李喆鎬

趙貞順 朴善童 李載震

○出席專門委員

鄭永國

○被監查機關參席者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庶務課長 千楠洙

教學課長 吳錦錫

企劃課長 蔡昇基

銓衡室長 朴東慧